

축산폐수·오염된 지하수 등 환경 열악... 소외받는 한센인촌 현애원 주민들

그들의 작은 소망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한국에 '레지오 마리에'(Legio Mariae= 천주교 평신도 단체)를 도입한 해럴드 헨리 대주교(Harold Henry).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묘비에 새길 "여기 동방으로 뛰어들고자 했던 이 잠들다" 라는 문구를 생각했지만 그가 선종(善終) 후 안치된 제주시 카톨릭 묘비에는 이런 문구는 없다.

하지만 그에게 큰 도움을 받은 한국 한센인들의 가슴속에는 '동방에 밝은 빛'이 되어 준 영원한 대주교로 남아 있다. 실제 나주 현애원의 '현'이라는 글자는 헨리(Henry)의 한국식 발음이다. 한센인들이 그를 존경하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대주교는 한국 한센인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반면, 정작 한국인들은 고(故) 육영수 여사와의 인연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나주 현애원의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오염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나주시 현애원 주민들이 상수도 가설 공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2년 상수도관 매설 공사를 완료했지만 각 가정까지 연결되는 수백만 원의 공사비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한센인들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다.

14일 현애원 주민들은 "상수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는 하지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한센인이 많아 여전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애원 주민들은 마을 천주교 성당에 설치된 지하수를 사용해 왔었다. 하지만 수량이 주민 전체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뚫어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

문제는 인근에 축사가 있어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 가족도 이 물을 직접 마실 수 없다는 점이다. 축산농가 주민들마저 가족에

한센인 1세대 등 160명 거주 헨리 대주교가 자립위해 조성故 육영수 여사가 자활 도와

인근 축사들로 오염·악취 심각 상수도 가설 마무리됐지만 추가비용 부담에 혜택 못봐

보상받을 땅 없어 이주도 힘들어 "쾌적한 공동정착촌 만들어주길"

? 해럴드 헨리 대주교는

1907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나 1932년 오마하의 성 골롬반 성당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은 후 1933년 동방에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첫 부임지인 노안 분당을 거쳐 나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나환자의 자립을 위해 현애원을 만들었다. 그는 1976년 향년 66세로 미사준비 기도 중에 선종했다. 장례식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고인은 우리 모두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게 물을 끓여 먹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애원은 상수도가 보급될 수 없을 정도의 오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무관심 때문에 소외받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노안면 유곡리에 자리한 현애원은 광주 송정역에서 노안면사무소 방면으로 승용차로 10분 정도만 달리면 도착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한센인 1세대 83명(남자 34, 여자 49

명)과 2~3세대 66명, 일반인 11명 등 총 160명이 살고 있다.

한센인 1세대는 지난 1953년 농원이 설립된 후 육영수 여사가 1971년 방문하면서 전달해 준 종돈(種豚) 20마리로 시작해 자랄해 왔다.

전남도의 지난 2013년도 자료에 따르면 현애원의 가족은 소, 돼지, 닭 등 3만6000여 두이며, 한센인 2~3세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10 곳이다.

한센인 1세는 83명이 생존해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70~90대다.

또 2~3세대도 대부분 외지로 나가 살고 있어 현애원 축산은 법인이거나 상당수의 외지인이 하고 있다.

한센인 1세대들은 이곳 양로원에서 지내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소 축사로 가득한 마을 중앙에 양로원이 위치해 있어 하루하루 축산폐수 냄새에 시달리고 있다.

자활에 밀려들었던 가족이 그들의 삶에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젊은 시절 소록도에서 생활했다는 김모(75)씨는 "고향을 찾아 소록도에서 나와 이곳 현애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깨끗한 소록도보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며 "외지인들이 들어와 축산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이웃이라서 싫은 소리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애원은 마을 전체가 천주교 소유로 돼 있어 이주도 힘들다. 한센인 1세대들은 이주하고 싶어도 보상받을 땅이 없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이에 현애원 한센인들은 공기 맑은 장소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나 국가에서 공동 정착촌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나마 전남도가 70억원을 투입해 현애원 인근에 5만190㎡ 규모의 인공 습지를 조성해 수거되지 못한 분뇨를 자연정화할 방침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g@

이것이 현애원의 현실

못 마실 지하수



현애원 양로원 마당에 설치된 지하수.

방치된 오염원



1997년 건립된 현애원 입구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지붕 일부가 날아가고 썩은 축산폐수가 가득찬 채 수년째 오염원으로 방치되고 있다.

썩어가는 습지



현애원의 습지 곳곳에 축산폐수가 무단방류 되고 있다.

나주시 노인복지관

'어르신 문화교실' 장관상



나주시 노인복지관(관장 양요섭)이 최근 제42회 어버이날 기념 우수 프로그램 표창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우수 프로그램은 '어르신 문화교실(찾아가는 한글교실)'이다. 지난 2007년 시작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주시 노인 1360명이 한글을 깨웠다. 또 현재 20개 교육장에서 253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시대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글을 알지 못해 겪는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인성 우울감 및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퇴직교사 및 퇴직 공무원 등의 인력을 교육장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학식·수확여행·백일장·학예 발표회·졸업식 등 다채롭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강사 교무회의, 타지역 문해(文解)교실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 관계를 위한 강사연수, 교수방법의 발전을 위한 사례발표 등을 통해 교육 효과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 2009년부터 참여한 편지쓰기 및 백일장 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등 99명이 수상했다.

양요섭 관장은 "이 사업이 한글 습득을 넘어 삶 속에 문화가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영부인 고 육영수 여사가 지난 1971년 나주 현애원을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때 전달해준 종돈(種豚) 20마리가 자랄의 밑거름이 됐다. <나주시 제공>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복중알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신(D) 대신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